

목양칼럼

설날과 그날

이민 땅에서는 대부분 잊고 지내는 설날이 이번 주(16일)에 있습니다.
 하얀 겨울 눈꽃의 고향,
 자식들이 찾아올 설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던 부모님을 향해
 두 시간이면 충분한 거리가 교통체증으로 다섯 시간, 여섯 시간 걸려도
 아버님 어머님을 뵈 설례는 마음으로 또다시 가곤 하던 설날.

한 손에 부모님께 드릴 새로 나온 내의를 곱게 들고 갖다가
 올 때는 양손이 모자랄 정도로 부모님이 싸주신 보따리를
 바리바리 들고 오던 설날이 생각나십니까?

이제는 그 부모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기도 하고
 계셔도 갈 수 없는 이민 땅의 우리들.
 우리 하나 잘 되는 소원 가지시고
 삶의 현장에서 온갖 서러움과 눈물을 삭이시고
 희생하신 부모님 생각이 몰릴 듯 떠오릅니다.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든 천국에 계시든
 우리가 힘들어도 이민 땅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듣고 보신다면
 직접 찾아가 세배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설날,
 찾아갈 고향도, 찾아뵈 부모님도 안 계시지만
 천국 본향이 있고 그날에 뵈올 부모님이 그곳에 계심을 알기에
 결코 슬프지 않은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설날은 그날입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886-5555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Q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송요한 (917)940-0596	
전도사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혜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용/EEP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전성호/청년선교부 (201)370-3455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배인구/ (917)736-3429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한국어교부 (646)789-1118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찬양대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중국어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진식	지휘 / 소유영	지휘 / 강혜영
반주 / 이선영 임세현	반주 / 김정윤 이승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최미희	반주 / 윤원주	



주후 2018년 2월 11일
 제 44-6호

주일예배 (1,3부)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27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김수산 장로 3부 / 이무근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출애굽기 20:1-26	사회자
찬양 CHOIR	참 평강 언계 하소서 네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1부/ 소유영 3부/ 김세린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620 / 1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주후 2018년 2월 11일

주일예배 (2,4부)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영광송 ANTHEM		찬양대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정성호 장로 4부 / 최원일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OFFERING & HYMN	2부/ 김유경 4부/ 고은비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2부/ 출애굽기 20:1-26 4부/ 요한복음 14:16-21	사회자
찬양 CHOIR	복있는 사람들 성령이 오셨네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복음을 믿으라: 성령	김성국 목사 오인수 목사
* 찬송 HYMN	마라나타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축복 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새가족 환영회
제 4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Ainos Youth Orchestra
제 11회 정기연주회
2/11(주) 오후 4:00

아브라함, 안나 선교회 헌신예배
2/14(수) 오후 8:00

수요 기도 예배	
아브라함, 안나 선교회 헌신 예배	
오후 8:00 (2/14/18)	사회: 황인섭 장로
예배부름	사회자
경배와찬양	다같이
기도	주봉순 권사
성경봉독	이희영 장로
	출애굽기 15:22-26
말씀	김재형 목사
	치료하시는 하나님
헌신찬양	아브라함, 안나 선교회
헌금	269
봉헌기도	황계덕 권사
합심기도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교회소식

2월 헌신의 달 -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2/11(주) 아이노스 제 11회 정기 연주회	2/14(수) 아브라함, 안나 선교회 헌신 예배
2/17(토) 한국학교 개강	2/19(월)-3/31(토) 사순절 서원 새벽 기도회
2/21(수) 차량위원회 헌신 예배	2/25(주) 44주년 설립 기념 주일 / 장학금 수여식

알림

- Ainos Youth Orchestra 제 11회 정기연주회**가 오늘 오후 4:00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 대십방일정**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교구: MT, Y1, Y2
2교구: F11, F13, F15 3교구: LN, FM1, FM2 4교구: EL, WS, GN
-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 교육**이 2/18(주)부터 5주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 2부 예배 후(11:45am) - 210호(학습), 213호(입교/세례), * 고등부 세례 학습: 부서에서 진행
* 유아 세례는 1회로 3/4(주) 오전 11:30(B06)
- 초등부 수련회 안내** 1) 주제: 주기도문 2) 기간: 2/18(주) - 20(화) 3) 강사: 윤선교 전도사
- 제 31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안내** * 교통편 필요하신 분들은 교구장께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 기간: 2/19(월) - 3/31(토) 오전 5시 45분
- 장학금 신청 안내** 교회 설립 44주년을 기념하여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1) 대상: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교회 등록 6개월 이상 교인) 2) 신청기간: 1/22(월)-2/18(주)
3) 신청서: www.kapcq.org 에서 download 하여 제출 4) 문의: 채현주 권사, 박정봉 집사
- 메인 스트리트 설 퍼레이드 안내** 2/17(토) 오전 11:00, 모든 성도가 함께 행진하며 노방 전도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에서 오전 9:30에 출발합니다. 문의: 오인수 목사, 최원일 장로
- 한국학교 안내** 개강일: 2/17(토) 오전 9:30-오후 12:30 * 한국 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문의: 김홍덕 권사
- 제 56기 전도폭발 훈련** 1) 등록 마감: 2/25(주) 2) 오리엔테이션: 3/4(주) 3) 문의: 오인수 목사, 최원일 장로
- 제5기 영성 훈련 안내** 1) 등록마감: 2/25(주) 2) 개강: 3/8(목) 3) 문의: 윤원상 전도사, 홍승룡 장로
3) 등록: 본교회 교인 자녀- 3월 첫주까지 각 부서를 통해, 외부 - 3/6(화) 오전 10시, 선착순 30명
4) 수업: 매주 화, 목 오전10:00-12:00 5) 문의: 이명옥전도사
- 태아교실**이 모든 임신 가정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1) 장소: 영아부실 2) 등록비: \$20.00
3) 일시: 3/11, 18(주) 오후 3:30-5:30, 수료 및 만찬 3/22(목) 오후 6:00 4) 문의: 윤지영 권사
- 2/17(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40대 선교회 (다음주: 중국 교포부)
- 가족기념 장학기금** 무명

새가족

박동진 (청장년 3LN1, 진하나 - 청장년, 박예성 - 유치, 박기성 - 유아) 조은영 (청년선교 4Y2)
신장섭 (바울 1F1, 신운선 - 청장년, 신지아 - 유년) 임선목 (청년선교 3Y2) 김현우 (청년대학 3Y1)

교우소식

소 천 허신일 교우의 남편 허광언(IBM T)씨께서 2/4(주)에 소천하시어 은혜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금식기도자 주 / 강옥순 박양부 문인숙
월 / 박금수 조은민 황은애 화 / 이현진 임경순 박명순 이정심
수 / 송동울 송미진 막지연 주광자 임동진 목 / 박순자 김경자 강연홍 허민정 김미경 장현미 김태선
금 / 박세은 박현아 백종우 이승은 박노은 변효근 김미권 토 / 김 만 김수산 김연희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QBC	오후 02:15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고등부실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6:3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출석

1부 예배	289	러시아어 예배	19	영어부	34	중등부	54
2부 예배	404	청년 선교부	82	유아부	34	고등부	52
3부 예배	305	QBC	295	유치부	36	청년 대학부	33
4부 예배	143	새벽 예배	834	중국어 교육부	21	교회 학교 예배	426
영어 예배	168	수요 기도 예배	268	유년부	83	주일 낮 장년 예배	1718
중국어 예배	306	새가족 환영회	11	초등부	79	주일 낮 총계	2140

2월 봉사의원

책임 장로: 김원도 장로

헌신기도	김원도 장로	정길표 장로	송동윤 장로	함용식 장로
책임권사	박대회권사	최정우권사	이지희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김형섭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송현규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애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다비다, 갈렙 주일식사: 한나/사라(다음주: 교포부)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선교회)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렙(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이번 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문답 28)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앎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얻습니까?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감사할 수 있고,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하게 합니다. 세상 만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월- 사도신경/ 찬송가 425장 /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1장 15-26절

그리스도인은 늘 화합과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본문의 야고보와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의 핵심과 상관없는 한 바울은 얼마든지 율법을 존중하는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관대하고 넓은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유를 얼마든지 남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닌 한 기꺼이 양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자존심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리스도인다운 여유로움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에게 주장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여유 있게 남의 의견을 들어주는 편입니까? 우리의 태도가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화- 사도신경/ 찬송가 544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1장 27-36절

바울의 선한 의도는 부정적 결말을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로 인해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게 되고, 이는 장차 로마까지의 안전한 여행의 발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도 어떤 일을 이루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도 주님의 섭리는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을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화합을 이루려 한 노력이 어려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의도가 좋다고 꼭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을 내도 냉담한 반응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의도가 선하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수- 사도신경/ 찬송가 337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1장 37절-22장 11절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단순히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남들과 평화롭게 지내서 좋기 때문입니까? 기독교는 그것 이상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내 삶의 곳곳에서 실제로 능력을 발휘하시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느끼고 경령하고 삽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결과 바울처럼 인격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단순한 명상이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실재(實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

리의 믿음은 실제(實際)적입니까? 현실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에는 없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까? 바울은 잡혀가는 와중에서도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상황에 굴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건이나 환경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합심 기도/ 주기도문

목- 사도신경/ 찬송가 436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2장 12-21절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소명을 받았고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직업 (vocation)이란 말은 소명 (calling) 이라는 어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증인은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내용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상이나 철학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관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나의 것인가?

합심 기도/ 주기도문

금- 사도신경/ 찬송가 183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2장 22-30절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군중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천부장은 그를 구금하고 채찍질하려다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멈춥니다. 사실을 말한다고 모두가 수긍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견의 뿌리는 그만큼 깊습니다. 즉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을 때만 세상을 바꾸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이 변화시켜야 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능력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합심 기도/ 주기도문

토- 사도신경/ 찬송가 445장/ 소요리 문답/ 사도행전 23장 1-10절

본문에는 누가 진짜 죄인이며 누가 더 이상한 것을 믿고 있는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된 공회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기독교에 뺏길까 봐 한목소리로 복음을 반대할 뿐 사실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것은 오히려 사두개인이었고 심판을 받고 단죄를 받아야 하는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단죄하려는 세상이 주님 재림 때에 심판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죄수의 몸이지만 그는 당당했습니다. 왜 우리는 신자인 것을 부끄러워합니까? 왜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합심 기도/ 주기도문